

민중의 생활상을 통한 우리 사회의 이해

‘사회사연구총서’ 펴내는 신용하 교수

‘한국사회사연구회’를 15년간 이끌어온 신용하 교수(57, 서울대 사회학과·한국사회학회회장)가 더욱 폭넓은 연구활동을 위해 ‘한국사회사학회’로 이름을 바꾼 후 그 첫 결실로 ‘사회사연구총서’ 시리즈를 펴냈다. 《한국사회사의 이해》(문학과지성)라는 표제가 말하듯 이 책은 ‘한국사회사학’ 연구의 개설서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변동과정을 인문학적 고찰과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좀더 두텁게 살펴보고자 시도한 ‘사회사학’의 새로운 학문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이고 있다.

‘사회사학’의 새로운 학문흐름 집약

“사회사는 사회의 구조와 그것의 변동을 다루는 역사입니다. 이제까지의 중앙정치사만으로는 국민들의 사회역사적인 참모습을 밝힐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그리고 민중의 사고방식과 의식체계에 주목합니다. 이를테면 사건사로부터 구조사·구조변동사로, 중앙정치사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사로 시각을 옮겨 사회의 전체상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이 책의 목차를 잠깐만 훑어보면 한국사회사가 어떤 학문이며 주요영역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제1부와 한말에서 일제하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제2부의 구성 아래, <국가와 지배체제>(이창걸) <인구변동과 도시의 발달>(조성운) <가족과 친족>(정승모) <종교와 사회사상의 흐름>(조혜인) <일제의 산업정책과 식민지 공업화>(이정옥)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민운동>(이준식) <노동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김경일) <가족생활의 변화와 여성의 성장>(문소정) <근대사회의 변화와 종교>(노지춘) 등 15편의 논문을 통해 당시의 시대를 폭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있다.

이같은 연구대상에 대한 시각교정은 유럽의 이론들에 영향받은 바 크다. 페브르, 블로흐, 블로델 같은 사회사학자들 혹은 유럽의 아날학파의 연구관점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 예컨대 독일에서는 일반민중들의 역사, 즉 해방사와 시민사회사에 비중을 두었고, 영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사회의 밑바닥 계층과 노동자계급, 여성과 어린

“사회사는 이제까지의 중앙정치사

만으로는 국민들의 사회역사적인

참모습을 밝힐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개인보다는 민중의 사고방식과

의식체계에 주목합니다.

사건사로부터 구조변동사로,

중앙정치사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사로 시각을 옮겨

전체 사회상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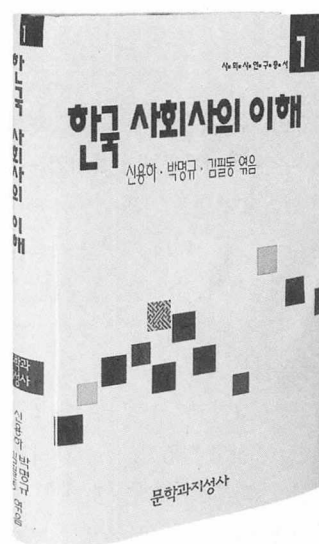
이의 역사에 눈을 돌렸다. 또 파리 중심의 프랑스 역사는 차의 사회사, 독서의 사회사 등으로 역사를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한국의 경우, 왕조 중심의 연구로부터 일반국민의 역사로 돌려놓음으로써 우리 역사가 걸어진 길을 좀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신용하교수는 농민운동, 갑오농민혁명운동, 개화운동, 근대화운동, 시민운동, 민족운동, 반제국주의운동 등 우리나라 ‘사회변동’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온 역사에 주목한다. 이 책 가운데 실린 신교수의 논문 <지주제도와 농민생활>에서는 고려 중기 이후 일반적인 제도로 정착한 지주제도 아래 농민들은 어떤 경제적 고통에서 살았으며, 과중한 부담에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신장시켰는가를 살핀다. 근대 여명기에 농민들이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주역으로 나서게 된 사회역사적 배경을 밝힌 셈이다.

개별논문이지만 일관된 논리

“사회과학의 개설서로서 원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의 전시기를 아우르지 못한 점, 편이상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두 장으로 나뉜 근대사회의 이행과정과 운동의 부분이 편집상 강조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호흡해온 덕에 누가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훤히 알고 있어 개별 논문 모음이라도 한 사람의 필자가 쓴 책 이상으로 논리의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의 미덕이다. 1945년 이후의 현대사 부분



신용하 교수.

은 따로 묶을 계획이며, 총서의 첫권에 이어 《한국 근대지방사회변동》(박명규, 서울대) 《조선사회의 신분과 조직》(김필동, 충남대) 《일제하 노동운동 연구》(김경일, 덕성여대) 《근대 한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신용하) 《한국 근대 농촌 사회제도 연구》(윤수중, 전남대)도 잇따라 선보이게 된다. 계간 학술지도 간행할 계획.

‘한국사회사학회’의 전신인 ‘한국사회사연구회’는 80년에 미국 중심의 사회학적 방법론에서 벗어나 ‘한국 중심’의 사회학을 일궈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소모임. 전국의 220여 회원이 한달에 1,2번의 정기모임으로 꾸준한 학회활동을 이어와 지금까지 총44권의 연구회 논문집을 펴냈고 올해 안에 50권까지 마무리지를 예정이다.

서울대에서 시작한 자그마한 모임이 어느새 전국 각지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집단으로 자리한 데는 신교수 자신의 식지 않는 선구적 학문열정이 뒷받침됐다.

신교수가 저술한 엄청난 연구서들이 그를 증명한다. 우선 손꼽히는 대표적인 저서로 《독립협회 연구》(76) 《한국 근대사와 사회변동》(80)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87) 《한국 현대사와 민족문제》(90)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93)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95) 등이 있다. 지금까지 모두 23권의 저서에 12권의 편서, 번역서 2권, 논문만 무려 200편 정도 발표했다. ‘필생의 저술은 단 한권’이라는 말은 신교수의 엄청난 학문욕과 부지런한

연구 앞에서는 한낱 게으른 학문의 구실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정의’에 대한 청년같은 열정

30여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걸어온 학문 인생에 여가나 취미생활은 ‘사치’로 여겨진다. 공부에 치진 머리를 식힐 겸 하는 일은 또다시 책읽기다. 박완서, 최일남의 소설도 즐기는데, 주로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예수·석가·공자의 생애와 말씀들을 읽어 마음을 가다듬는다.

신교수는 또 구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 주장론자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철거되면 황량하겠지만 홍예문을 세우고 좌우 누각과 조경을 꾸미면 또하나의 궁궐을 도심 속에 갖게 된다는 생각이다. “왕조시대를 동경해서 궁궐을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재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아보자는” 뜻이란다. 그런 점에서 신교수는 민족주의자이다. 침입제국주의에 맞서 자유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가치체제란 다음인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청년같은 열정은 신교수를 줄곧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의 연구테두리 속에 묶어둔 셈이다.

“자기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정의로운 민족주의를 공부하자면 피곤함과 잊고 나도 모르게 표현이 정서적으로 뒤흔린다”는 신교수의 ‘민족주의적’ 열정은 정의의 이데올로기가 잊혀지고 있는 이즈음에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은 듯하다.

—김지원 기자